

EXPERT
KNOW-HOW시민들 속으로!
CBS OPEN STUDIO

+ 장상원 CBS 기술연구소 연구원

개요

CBS 빌딩 주변에는 대형 백화점 및 마트가 위치하고 있고 대형서점 및 영화관, 커피숍,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심 속 차 없는 광장(축제의 거리)을 끼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픈된 공간에서 방송제작 및 송출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시선을 집중시키고, CBS 브랜드 이미지의 홍보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의 정착을 통해 오픈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질 높은 다양한 문화를 많은 시민에게 경험토록 하였다.

구축과정

오픈 스튜디오 설계 시 가장 큰 이슈는 방송국 건물 내에 있느냐 없느냐일 것이다. 건물 밖에 별도로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경우, 냉난방 공조와 방송장비 및 방송라인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오픈 스튜디오도 좋은 대안이지만 CBS 옆 광장은 차 없는 거리라 차량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에 맞는 설계를 진행하였다.

디자인

오픈 스튜디오 디자인은 최대한 라디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변 건물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초기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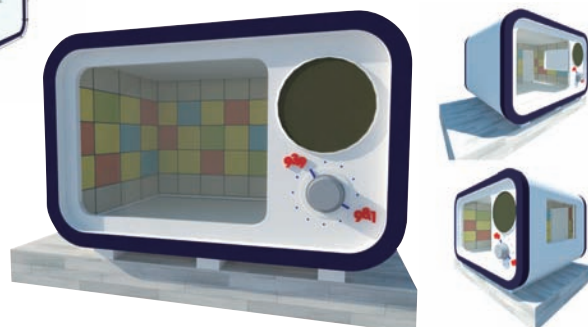


그림 2. 오픈 스튜디오 최종 디자인

방송 시스템

오픈 스튜디오에서 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CBS의 표준FM, 음악FM 정규 프로그램을 교차로 편성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낮 12시 음악FM, 오후 2시 표준FM, 오후 4시 음악FM 식으로 편성하고 매주 또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편성국과 디지털기술국과 오픈 스튜디오 오운용 계획을 협의한다. 즉 정규 프로그램을 오픈 스튜디오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한 시스템으로 설계했다.

① 오디오 콘솔

오픈 스튜디오 공간과 테이블의 크기를 고려하고 마이크와 음원재생장치의 개수를 고려하여 DHD의 52/SX 콘솔을 사용하였다. 입력과 출력에 대한 계통은 그림 3을 참고 바라며, 특별히 초대가수와 밴드가 오는 경우는 별도의 오디오 콘솔을 사용하여 오픈 스튜디오 앞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결과적으로는 최종 오디오 소스가 DHD 52/SX의 PGM 출력력을 통해 CBS의 융합네트워크센터로 전달되고 이후 RF 송신소로 전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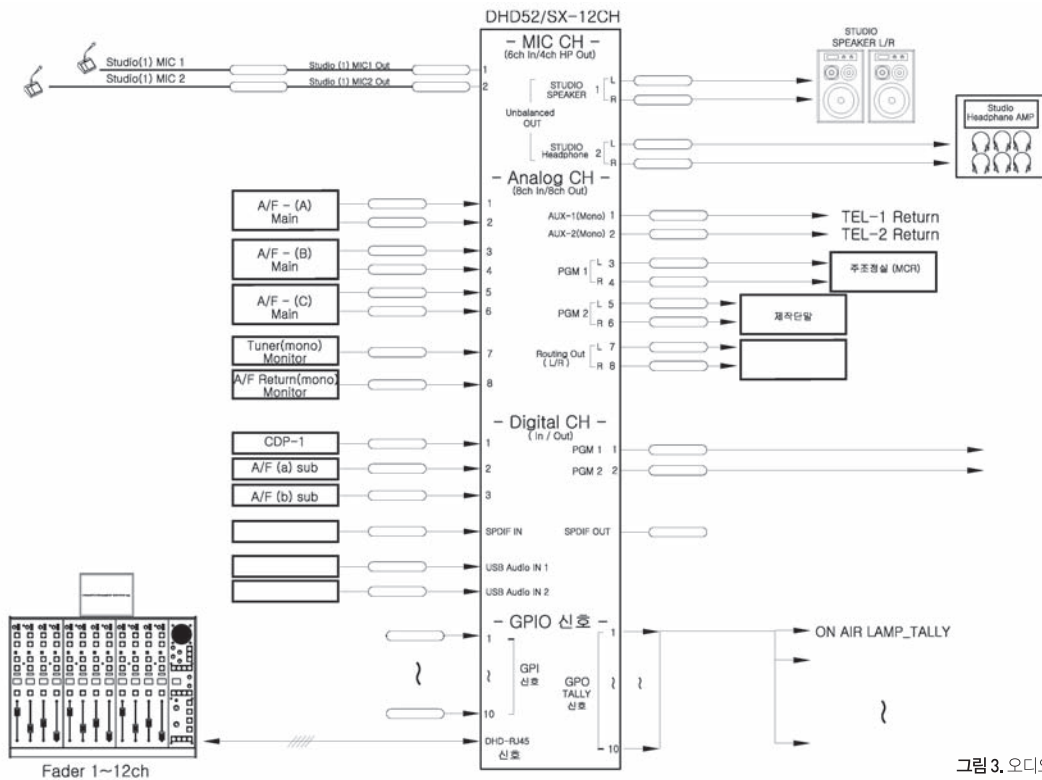


그림 3. 오디오 계통

② 오디오 파일 시스템

오디오 파일 시스템으로는 2013년도 개발 완료된 nCROS(차세대 CBS Radio Operating System)를 사용했다. 총 2대의 진행 단말을 주·예비 개념으로 설치했다. 처음에는 단말의 팬 소음과 관리 이슈가 있어 CBS 건물 내에 진행 단말을 설치하고 KVM Extender를 사용하여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만 연장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KVM을 사용한 운용이 장애발생 시 결코 좋지 않았다는 경험이 있어 이번 경우는 진행 단말을 오픈 스튜디오 내에 설치하였다. 대신 진행 단말의 컴퓨터 사양을 내구성 및 팬 소음과 장비운용을 고려하여 기술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했다.



그림 4. nCROS 진행 단말

③ 네트워크 및 공조

오픈 스튜디오와 CBS 서버실까지 거리가 200m 가까이 되어 기가스위치허브와 Cat.6 케이블을 네트워크 이중화를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장애발생 시에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기시설과 공조 또한 마이클를 타고 잡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했으며 특히 난방 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운용 스케줄을 두었다. 이유는 한겨울 생방송이 없는 새벽시간에 오픈 스튜디오 내 난방을 앓다가 아침에 다시 난방을 하는 경우 방송장비에 이슬이 맺어 고장나기 쉽기 때문이다.

활용 프로그램

CBS 인기 프로그램 생방송

① 유동인구가 많은 낮 시간대 생방송 활용

음악FM <신지혜의 영화음악>, <12시에 만납시다 김필원입니다>,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저녁스케치>



그림 5. 12시에 만납시다



그림 6.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표준FM <뮤직플러스>, <라디오3.0시대>, <상상싱> 등 인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생방송으로 진행해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

그림 7. 이지민의 뮤직플러스

② 주말과 저녁 시간 시민 쉼터로 기능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노을이 지는 풍경과 함께 오픈 스튜디오에서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오미희의 행복한 동행>, <허윤희의 꿈과 음악사이>를 생방송으로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삶에 배경음악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이 담소를 나누고 쉴 수 있는 공간, 즉 시민들의 휴식터에 배경음악이 나오는 '뮤직박스'가 되고 있다.

그림 8.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미니 콘서트홀'

오픈 스튜디오 앞 공간에 무대를 설치하여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념하여 <김광한의 라디오 스타>에서 거리음악회를 개최하여 연인이나 가족들에게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추억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 이후에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등 미니 콘서트가 가능한 프로그램에서 질 높은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림 9. 라디오 스타 크리스마스 거리음악회

주요 성과

치열해진 경쟁시대에 돌입한 라디오 방송국은 다채로운 방식으로 애청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보통 명절 때 마련되는 이동 스튜디오나 방송국 건물 내에 위치한 기존 오픈 스튜디오와는 달리 CBS 오픈 스튜디오는 목동 '축제의 거리' 한복판에 상설로 자리하고 있어 차별적이다. 한 예로 오픈 스튜디오에 오신 어느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라디오에 대해 설명해주고,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신청곡을 신청한다. 시민들 속에서 마치 공개방송처럼 진행하니 소통도 되고 살아있는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치열한 미디어 경쟁 환경에서 라디오가 이런 독특한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써 자연스럽게 CBS의 브랜드 가치도 함께 극대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